

‘의림지’를 둘러싼 문학지리학적 접근과 로컬리티의 발굴

고전문학과 지리학의 학제 간 연구를 위하여*

The Literary Geographic Approach and Exploration of Locality around 'Uirimji'
: Combined wi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geography

하윤섭** / 김소라***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장자못 전설」, 「거북바위 전설」, 「어장사참사가」 등 의림지를 둘러싼 여러 텍스트들을 경유하여 제천 특유의 로컬리티를 재현해 보고자 했다. 제천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분지 지형으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 탓에 가뭄이 잦고 토지가 척박해서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부에 대한 독점을 경계하고, 획득한 부를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천 지역에 전승되는 「장자못 전설」의 각편들이 일반형과 적지 않게 다르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제천은 외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을 정도로 바깥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의 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씨 호형제들이 의림지에 침입한 구렁이를 없애버림으로써 기존의 안정된 질서를 복구한다는 「어장사 참사가」나 외부인에 대한 적극적인 환대를 주문하는 「거북바위 전설」은 제천 지역의 이러한 로컬리티가 반영된 일단의 결과물이다.

핵심어 충북 제천, 의림지, 로컬리티, 문학지리학, 부에 대한 공유, 외부인에 대한 경계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2)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제1저자).

***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책임연구원(교신저자).

차례

1. 문제 제기
2. 척박한 자연환경과 부에 대한 분배
3. 폐쇄적인 지리적 조건과 외부인에 대한 경계
4. 결론

1. 문제제기

‘보편과 개별의 길항’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로컬리티’의 문제로부터 본 논의를 시작한다. 흔히 ‘지역성’으로 번역되곤 하는 로컬리티는 일단은 개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때 보편의 자리에는 중앙, 곧 서울이 놓인다. 물론, 서울 역시 하나의 지역임이 분명하지만, 서울과 지방의 강고한 위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당위는 끼어들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⁰¹

생각해 보면, 대개의 보편은 개별을 보편화하려고 한다. ‘한국문화’라는 말은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문화들, 예컨대 충청문화, 전라문화, 경상문화 등의 합집합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이해하더라도) 교집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하위문화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로컬리티’라는 개념은 교집합을 뺀 나머지 여집합의 부면을 통해 보편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고자 함일 텐데, 실제의 지역학 연구가 그러한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신하기 어렵다.

01 『표준국어대사전』의 ‘지방’은 “(1) 어느 방면의 땅”이라는 뜻과 “(2) 서울 이외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1)의 정의는 ‘전국(全國)’의 상대어이지만, (2)는 ‘서울’의 상대어여서 의미의 범주와 실질이 전혀 다른 셈인데, 등재된 의미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현실의 언어생활 속에서 (1)보다 (2)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은 구체적 증거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연하다.

[1] 18세기 호서학파의 로컬리티는 첫째, 의리와 원칙을 중시하고 둘째, 정통 주자주의의 실천가로서의 성향이 강하며, 셋째, 도덕적 규범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의 계승의지가 강하다. 또한 자유로우면서도 지적이고 정밀한 토론을 즐기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유연성과 개방성을 내포한 보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8세기 호서학파의 로컬리티는 현대 충청에도 면면히 전해오고 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당장의 이해득실 추구에만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18세기 호서학파의 로컬리티는 때로는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지만, 올바른 도덕적 가치의 수호와 의리를 지키며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⁰²

[2] 충청 유교문화의 특성은 성리학, 인물성동이론, 양명학, 기학, 의리학, 실학, 예학 등 개방성과 다양성에 있다.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예문화의 창출과 향유이다. ‘충청도 양반’이라든지, 충청도를 ‘예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배경은 예학의 근거지가 충남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의리적 도학풍’ 역시 충청 유교문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⁰³

상기한 연구들은 충청의 유교 내지는 성리학적 전통을 통해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를 탐색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한다. 충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들이 기분 나쁠 리 없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리와 원칙의 중시”, “도덕적 가치의 수호”, “예학의 근거지”, “의리적 도학풍” 등 위의 인용문을 구성하고 있는 현란한 수사들은

02 이영자, 「18세기 호서학파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본 충청의 로컬리티」,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2017, 189~190쪽.

03 김경수,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과 유교의 현재화를 위한 제언」, 『한국사학사학보』 39, 한국사학사학회, 2019, 241쪽.

대부분이 유교 일반의 덕목들이라는 점에서 충청유교‘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이라 선불리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충청유교’는 성리학이라는 ‘보편’이 충청이라는 ‘개별’을 보편화하는 데에 성공했음을 자인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충청의 유교가 중앙의 유교와 얼마나 흡사한지를 타진하려는 목표하에서 충청의 로컬리티는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사라지고 만다.

물론, 필자 역시 ‘충청유교’의 성립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례의 축적과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상기의 요소들이 타 지역에 비해 도드라진 지점임이 확인 된다면, 남은 일은 그 도드라짐의 원인을 충청이라는 변수의 지리적·환경적 조건과 연계시켜 보는 일이다. 예컨대, 정치적 실세失勢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삶의 대안처로 충청을 택했던 것은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 더해 바로 그 적당한 거리로 인해 훗날의 승리를 도모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 역시 한몫을 차지했다.⁰⁴ 이때, 의리 또는 그에 준하는 구호들이 혼탁한 세속을 떠나는 이들이 매일반으로 내세우는 합리적 명분이라는 사실은 별도의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충북 제천의 ‘의림지’는 어떠한가? 의림지는 “고을만 있고 못이 없다면 제천이 이름난 고을이 되기에 부족하다”⁰⁵ 라고 말할 정도로 제천을 대표하는 명소인데, 수려한 풍광도 풍광이지만 제천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로서 기능했던 만큼 의림지의 형성을 둘러싼 문학 텍스트들이 여러 편 남아 있다. 문제는 해당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

04 하윤섭, 「패퇴와 도모의 땅, 충북: 송강묘의 이장(移葬)으로 본 충북의 로컬리티」,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일 반공동연구지원사업단 편, 『고전문학으로 충북을 읽다』, 충북대 출판부, 2021, 121쪽; 이새롬, 「조선 후기 문인의 남한강 유역 공간 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226쪽.

05 최석정, 「臨沼亭記」, 『명국집』 권9, 『한국문집총간』 154, 한국고전번역원, 1995, 11쪽. “有縣而無池, 則堤不足爲名邑.”

식인데, “민중들의 한과 용맹스런 삶이 녹아있는 심상적 공간”⁰⁶이라든지 “의림지라는 문화지리적 환경물을 통해 지역사람들의 농경문화적 공동체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⁰⁷ 등과 같이 선행연구들이 내어놓은 결론들은 제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⁰⁸이라는 로컬리티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한편, 무형의 로컬리티를 유형의 텍스트로부터 찾아내려는 시도는 보는 이에 따라 도로(徒勞)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점에서 본 논의의 성립 가능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첫째, ‘문학’의 보편적 갈래를 정의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자아’와 ‘세계’임을 감안하면, 문학은 우리네 인간이 폭압적인 세계와 사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에 가깝다. 폭압적인 세계의 범주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역시 그 한 편을 차지한다. 특히, 자연에 대한 통제가 지금에 비해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전근대 시기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따라서 어떤 고전문학 텍스트에는 폭압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조건에 대한 인간의 경험, 상상, 소망 등이 ‘은근히’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로컬리티의 다양한 정의 가운데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이 시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양상”⁰⁹을 택한다고 할 때, 로컬리티

06 권순궁, 「제천 의림지의 문학지리와 그 의미」, 『한국문학과 로컬리티』, 박이정, 2014, 34쪽.

07 서해숙, 「의림지 관련 설화에 반영된 지역민의 농경문화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55쪽.

08 이해준, 「지역문화 연구의 경쟁력」, 『로컬리티의 인문학』 2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쪽.

09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2014, 14쪽.

는 결국 동일한 공간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누적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유하게 된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무의식이 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듯 집단적 무의식 역시 문학이라는 유형의 산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재현한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자기 검열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바를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¹⁰하듯 문학 역시 그 안에 잠재해 있는 집단적 무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에 깃들여 있는 집단적 무의식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표층의 이야기를 헤집어 심층의 영역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들추어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꿈이 해몽의 대상이라면, 문학 역시 해석의 대상인 것이다.

셋째,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을 합하면, 특정 공간을 둘러싸고 산출된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의 자연적 조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온축된 경험, 상상, 소망 등을 함께 살피는 일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로써 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문학지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확보되는데,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에 그려진 공간 또는 장소가 실제 지리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탐구하는 연구방법론”¹¹으로,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생산된 문학 텍스트와 그 안에 녹아들어 있는 사람들의 심상지리를 분석하는 데에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장자못 전설」, 「거북바위 전설」, 「어장사참사가」 등 의림지를 둘러싼 여러 텍스트들을 경유하여 제천 지역의 로컬리티를 재현해 보고자 한다. 의림지에 투영된 제천민들

10 서영채, 『인문학 개념정원』, 문학동네, 2013, 73쪽.

11 권혁래,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우리문화회, 2016, 13쪽.

의 역사적 상상은 어떠했으며, 그것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볼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2. 척박한 자연환경과 부에 대한 분배

제천 지역은 태백산맥에서 분기된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분지 지형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바다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다.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어 기온의 일교차, 연교차가 크고 계절의 변화도 빨리 나타나며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¹² 이 점, 전근대 시기의 문헌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정인지의 시를 빌려 “지세가 가장 높은 곳 / 백성들이 이 궁벽한 시골에 사내”¹³라고 되어 있으며, 『택리지』에도 “온 고을의 사면에 산이 솟아 있다. 고을이 산에 자리 잡은 형국이나 …(중략)… 지대가 높고 바람이 차며 땅이 척박하여”¹⁴라고 되어 있어 제천이 놓여 있는 지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은 당연히 제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터, 실제 “땅이 궁벽하니 백성이 적다”¹⁵라든지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¹⁶ 등 궁핍한 제천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제천민들에게 의림지의 존재는 각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천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세종실

12 문승두, 「제천분지내의 지형구분에 관한 연구」, 『동굴』 8, 한국동굴학회, 1982, 20쪽.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충청도 제천현」, “地勢最高處 / 民居是僻鄉.”

14 이중환, 안대회 외 역,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137쪽.

15 이승소, 「到提川」, 『삼탄집』 권4, 『한국문집총간』 11, 한국고전번역원, 1988, 414쪽. “地僻少齊氓.”

16 이중환, 앞의 책, 137쪽.

록지리지』에 따르면 충청도 내의 총 경지 면적 236,300결 가운데 제천은 3,915결로 그 비중이 1.7%에 지나지 않았다.¹⁷ 얼마 안 되는 이 땅에 제천민들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인데, 주지하듯 전근대 사회에서 물의 통제는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제천 지역은 여름에 태백준령을 넘어오는 더운 높새바람 탓에 극심한 가뭄이 빈발했으니,¹⁸ 이 지역에 자주 일어나는 화재(火災)에 대해 지역민들이 풍수의 탓이라 여겼던 것¹⁹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지고 보면, 제천의 초기 지명인 ‘내토(奈吐)’, ‘내제(奈提)’ 등에 물을 뜻하는 ‘내’자가 공통으로 들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물의 존재가 유달리 소중했음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의림지의 관개율이 71.6%에 달했다는 사실²⁰은 의림지가 제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삶의 원천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뭐 안랴국, 뭐 사벌국 있을 때, 지역마다 인제 어떤 부족국이 사는 데는 가물어가지고 / 부족국 왕이 성 안에서 놀다가 우연하게 사람 아우성이 들리기에 성담에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올라가 막 데모를 하니까, / “자들이 왜 그러느냐?” / “임금님 아뢰기는 죄송하지만, 가물어가지고 올해 농사 흉년이 나가 굶어죽는다고. 저래 데모를 합니다.” / 그래, 큰일 났다. 너하고 왕사를 불러라. 우리 서어서 밤을 새우면서 삼일로 금식기도하자. 천지신명에게. 그래가지고, 그래 인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올 것 아닙니까.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인거냐. / “왕아 이걸 니가 무슨 불충해서 하는 죄로 받는 벌로 받는 가물

17 구원희, 『제천 의림지에 관한 역사적 검토』,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편, 『의림지유산과 농경문화』, 제천문화원, 2013, 118쪽.

18 이창식, 『의림지 전승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위의 책, 241쪽.

19 『제천시지』 중, 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 83쪽.

20 구원희, 앞의 글, 120쪽.

이 아니고, 계절의 순환과정에 생기는 한 일시적인 그건데, 그러나 너 동네에 내가, 니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한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으니 복을 주마. 너 동네에 니가 왕이니까 노동력을 창출하는 그 날이 있으니까, 젊은 병력들, 청장년들 끌어 모아가지고, 보습 삼가래로 계속 너 동네 움푹 파인 웅덩이를 계속 넓혀 나가거라. 니 대만 하지 말고, 니가 죽거든 니 아들 대에도 유언을 남기고 하고, 니 아들만 하지만 말고, 니 손자 대하고 수백년을 그걸 파서 넓혀 나가거라. 그렇게 해야 큰 못 저수지가 된다. 큰 저수지가 되면은 그 물을 가두어 났다가 가물 때마다 조금조금 관개용으로 써먹어라. 그러면 너 동네가 굶어 죽는 일이 없다.” / 농경사회 때, 최고의 *○*아닙니까? 임금 덕 자, 못 택 자. 임금이 파준 못이다. / 어느 못입니까. / 요 상주 공검지, 영천 저 청제, 의성 대제, 그 다음에 저기 저 부안 김제에 벽골제, 여여 제천에 의림지, 삼한시대에 판 못이 그 덕택이라.²¹

위의 이야기는 의림지의 형성과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가뭄으로 인해 굶어 죽게 된 백성들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왕에게 요구했고, 왕이 3일간 금식기도를 올렸으며, 이에 대한 신의 응답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의림지를 비롯한 일련의 저수지들이라는 것이다. 신과 신의 대리자인 왕의 힘을 빌어 저수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는 ‘물’과 물을 모아 놓는 ‘저수지’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적인 상상이 투영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생사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으로 대변되는 절대자의 시혜 ‘덕택’에 가능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

21 「임금의 덕택으로 판 공검지」(경북 영주시 순흥면, 박성홍),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https://gubi.aks.ac.kr/web/>).

다.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 물은 어느 지역에서나 중요하게 생각되었겠지만 지리적 조건에 의해 원천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물에 대한 의미 부여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역시 자명하다.

[1] 그 전에 그 못 터에 장자가 살았대요. 장자가 살았는데, 중이 참, 와서 동냥을 달라고 그 장자의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거름대를 그저 오야를 치다가 이기나 줄까 하다가 그 거름을 하나 떠 가지구선 중을 중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부가 있다간 말이며, 노인이 그랬는데 그 자부가 있다가, “에이, 그게 될 말이나”구. 아버님, 그러면 안 된다”구. 더 가디만(들어 가디만) 하얀 백미를 한 말 가지구 와서, “스님, 이거 가지구 가라”고 말여. 가지구 가라고 말이며. 가지구 가라고 그래니까. “에, 그 그저 고맙다”고. 이래면서 가지구 가면서, “마나님, 그 저 동자님을 데리구 말이며 날 따라 오시라”고 그래거든. 그러니까 될대로 돼 그런지 그 아를 업고는 따라 나서니까 말이며. 고 의림지 못을 이 짝 저 장락으로 굴면면은 요만한 목쟁이 하, 하나 있어요. 그 목쟁이를 나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 중이 그랬는데, 거 와서 그래도 집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중을 따라가는데 집을 못 잊어서 한 번 돌아보니까 말이며. 하마 그 집터가 고만에 둘러 빠져서 시퍼런 못이 났더라. 그래 그 아를 이의림이라고 이름을 짓다. 이의림이, 으름이 그래 그 여자하고 그 아 하고는 살았어. [조사자: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집에는 고만 드럭에 빠져 못이 돼 버렸고. 그래 그 쌀 한 말 준 그 공로다가 들을 살렸단 말이며. 그래 그 의림지 못이라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의림지 못. [조사자: 한문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옹을 의義 자 에다가 수풀 립林 자예요.²²

22 「의림지 장자못 전설」(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김진홍),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

[2] 제천군에 의림지라고 있습니다. 그 의림지 못이 그전에 부자의 터에
 요. 그래서 주인의 딸이 의림이거든요. 하루는 어느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니깐 그 어머니가 디딜방아를 쥘으면서, “줄 게 뭐 있나? 우리 의림이나 줄
 까?” 하고 빈축거렸어요. 그러니까 딸이 대청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자꾸 그
 라니까 그 참 쌀을 떠 가지고 나갔습니다. 쌀을 도사를 갖다 주니까 그 중이
 안 받아 갖구 그냥 가요. 그래 자꾸 애원을 하니깐, “뒤를 돌아다 보지도 말고
 내 뒤를 따르라”. 그래서 제천에 뒤에 가면 당나귀라 하는데 탑²³이 있습니
 다. 탑에 데리고 올라가서 탑 위에 올려 주고, “집을 보아라.” 집을 보니까 의
 림지 못이 되었어요. 그래 의림지 못이 샷갓 벗겨 놓은 것 같습니다. 참 놀기
 좋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설에 나옵니다.²³

[3] 그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는데 그 쌀을 주지 않고, 거름을 쥐 가
 지고 뭐 그게 연못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아, 그런 설이, 의림지에 대해서
 그런 설이 있지요. 아, 의림지에서요? 어떤 얘기가 있나요, 의림지에서? 한
 며느님이 그 저 그 스님이 가서 “시주를 해라” 그러니까. 뭐 그런 절(+쌀 대신
 거름 등) 쥐 가지고선, 그 시어머니가 “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
 고선. 그래 그 스님이 {(+시어머니에게)} “날 따라 오라”고 그래 가지고선, {(+스
 님이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보구서는, 아 “그, 그 집이 지금 못에 묻혔
 습니다(묻혔습니다)” 이래구선, {(+시어머니가)} 이래 바라보니까 못에 묻힌단
 {(+묻혔다는)} 말이여. 그런데 거기에 그 며느리가 “살리(살려) 달라”고 아우성
 을 쳤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 의림지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고(그리고) 뭐 명주실이 다, 다도(+당아도) 끝이 없다 이러는데 그게 그

23 「의림지 전설」(충북 중원군 상모면, 윤호영),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

렇지는 않아요(않아요).²⁴

상기의 인용문들은 모두 의림지의 형성과 관련하여 제천 및 제천 인근의 영월, 단양 등지에서 채록한 이야기들이다. 주지하듯, 이 이야기는 「장자못 전설」을 모태로 하는데, 「장자못 전설」 자체가 광포전설에 해당하고 제천에는 의림지라는 증거물이 있어서 제천 지역에서 이와 같은 류의 이야기가 산전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장자못 전설」의 일반형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지점은 제천 지역에서 채록된 각편들에는 일반형에 있는 주요 화소가 빠져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장자못 전설」의 일반형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옛날에 인색한 장자가 살았다. ② 어느 날 도승이 장자의 집을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③ 장자가 도승을 푸대접하였다. ④ 장자의 며느리가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쌀을 한 바가지 퍼 주었다. ⑤ 도승이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 피신하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하였다. ⑥ 도승을 따라가던 며느리가 땅이 꺼지는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는 바람에 돌이 되고 말았다. ⑦ 장자의 집은 물에 잠겨 못이 되었다.”²⁵ 이 중 제천 지역의 「의림지 전설」에는 며느리가 도승의 금기를 어기고 돌이 되었다는 석화^{石化} 모티프가 대부분 보이지 않는데,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림지 전설」 7편 가운데 1편만이, 여기에 충청북도에서 발간한 『전설지』²⁶의 사례를 더한다 하더라도 8편 가운데 2편만이 석화 모티프가 보인다. 최래옥에 따르면 장자못 자료 200개 중 10개에만 석화 모티프가

24 「의림지의 유래」(충북 제천시 금성면, 이종환),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

25 김영희,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9, 92쪽.

26 「의림지」, 『전설지』, 충청북도, 1982, 89~90쪽.

부재하는데,²⁷ 제천 지역의 경우 이것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먼저 [1]의 경우, 일반형의 화소 가운데 ⑥을 제외한 모든 화소가 들어가 있다. 「장자못 전설」의 일반형을 알고 있었을 조사자가 예상과는 다른 서사적 전개에 며느리의 생존 여부를 재차 물었지만[“살았어요?”] 구연자는 그녀의 아들 이름이 못의 명칭이 되었음을 말하면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을 “쌀 한 말 준 공로”로 돌린다. [2]는 [1]에 비해 축약되어 있고, 며느리 대신 이름이 ‘의림’인 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①과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도 ⑥을 제외한 모든 화소가 보인다. 그리고 도사에게 쌀을 건네준 딸은 도사가 그녀를 탐 위에 올려준 덕분에 생존한 것으로 제시된다. [3]은 어떠한가? 여기서도 등장인물의 관계가 변형되어 등장하는바, 스님을 박대하는 인물은 며느리로, 그것을 만류하는 인물은 시어머니로 등장하며, 악행을 저지른 며느리는 죽고, 선행을 한 시어머니는 살아남는 것으로 재현된다.

이와 같이 의림지를 둘러싼 「장자못 전설」의 각편들은 일반형과는 사뭇 다른데, 그 대강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석화 모티프의 비중이 일반형에 비해 현저히 적다. 「장자못 전설」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 ‘홍수’와 ‘금기’인데,²⁸ 의미 비중 및 형상화의 방향에 있어서도 후자가 더 큰 몫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림지를 둘러싼 「장자못 전설」의 각편들에 ‘금기에 대한 위반’과 ‘그에 따른 징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각편의 수용자들이 ‘물’과 관련된 전자의 문제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했음을 말한다. 또한 제천 지역

27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그 변이와 분포를 중심으로』, 일조각, 1990, 131쪽.

28 오정미, 「장자못 설화 연구」, 『국어문학』 60, 국어문학회, 2015, 143쪽.

의 지리적 조건상 ‘물’이 부족했다는 사실까지 적용하자면, 재해에 해당하는 ‘홍수’가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획득하게 된 시혜의 결과물로 변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인색한 시아버지와 선행을 베푸는 며느리로 나타나곤 하는 일반형의 가족 관계가 어머니와 딸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김영희에 따르면 「장자못 전설」 가운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대신 다른 가족 관계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5%에 불과한데,²⁹ 유독 제천 지역의 「장자못 전설」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후술할 2편의 자료에서도 주인과 주인댁, 혹은 인색한 할머니가 홀로 등장하는데, 이는 곧, 이 이야기의 인물 관계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설정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굵직한 문제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든지, 연로와 연소의 문제, 내부와 외부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 등이 사라지고 만다. ‘며느리’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올 수 있다는 말은 며느리로 환기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제천민들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그만큼의 신경을 다른 곳에다 기울였음을 말한다.

셋째, 서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며느리가 돌이 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위반했기 때문이므로 석화 모티프가 없다면 금고 모티프도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 최래옥이 분석한 200개의 자료 중 석화 모티프가 없는 10개의 자료에는 금고 모티프 또한 없었는데,³⁰ 위의 [1]과 [2]에는 금고 모티프는 있는 반면 석화 모티프는 없다. 이렇게 되면 금고 모티프가 서사 내에서 아무런 기능을 못 하게 되는바, 흐름

29 김영희, 앞의 논문, 102쪽.

30 최래옥, 앞의 책, 131쪽.

상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석화 모티프를 없앤 것은 선행자善行者를 살리려는 제천민들의 무의식이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방향에서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천이 놓여 있는 열악한 환경적 조건과 결부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천은 가뭄이 잦고 토지가 척박해서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 그렇다면 부에 대한 독점을 경계하고, 획득한 부를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을 텐데, 인색한 장자를 죽이고 인색하지 않은 이를 살린 그들의 선택과 장자의 집이 무너진 자리에 제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림지가 형성되었다는 상상 역시 이러한 인식과 이어진다.

[1] 옛날에 옛날에 {+인색하게 구는 할머니가 살던 집이} 아주 잘 살았대요, 집안이. 그런데 인제, 쌀을 누가 사러 오면, 거기다가 돌을 섞어서 팔고, 또 장물을 얻으러 오면, 거기다 오지랴 물{+&소 오줌물&의 뜻}을 섞어서 주고, 그렇게 못되게 했대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만 그렇게 하고, 중이 오면, 또 줄 것 없다고.[좌우 청중을 바라보면서] 그 뭐야, 소똥, “소똥, 이거나 가지고 가라고.” 한 삼 주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만 구렁이가 됐대. 구렁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맞아서, 구렁가 돼서, 그 자손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할머니를, 인제, “세상이나 보다가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가면, 확키다가{+구렁이가 휘어 감겨서 움직이는 모양이다} 땡겼는데, 실컷 돌아댱기다가는, 저 제천 으름지{의림지} 못이라는 곳이 있대요. [보조 조사자 : 예, 으름지.] 응. “으름지 못가에 가서 내가 들어갈 데에 가야 된다고.” 거기 으름지 못가에 가니깐, 이렇게 물로 쑥 들어가더래, 그 할머니가. 그 구렁이가, 구렁랭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구선, 우리 할머니가, 그래잖애. “남

줄 적엔 좋은 것만 주고 뭐든지 후하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옛날이야기를
그래하시더라고.³¹

[2] 여기 말하자면 어떤 분은 뭐 제천^{攄川} 의림지^{義林池} 못이라는 그 참 용터
지기 용 꼬리쳤다는 곳이 있고 물 하수도 됐다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누가
어느 대사가 와설라니, “동냥을 좀 달라”, “동냥이 줄 게 어디 있느냐?” 구 거
름이나 준다구설라무니 이래설라무네 그 권택이, “그럴 수 있느냐?” 구. 쌀을
뭐 한 바가지 가져가니께, “뒤도 돌아보지 말구 날 따라오라” 구. 그러설라무
니 조금 있다 보니 그 모양이 의림지 모양이 됐다 그래. 저 원주^{原州} 가면 미륵
댕이 그 미륵이, 그 여인이 미륵이 [웃으며] 됐다는 그런 말은 전설은 있지요
마는 그 누가 압니까?³²

[1]은 「장자못 전설」의 변이형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등장
인물이 “인색하게 구는 할머니” 혼자뿐이어서 그에 대립하는 선행자가
보이지 않으며, 할머니가 행했던 부정적인 축제의 과정이 스님을 박대
하는 일반의 삽화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인색한 할머니가 악행에 따른
징벌로 구렁이가 되는데, 그 할머니가 중국에 선택한[“내가 들어갈 데에 가
야 된다”] 삶의 마지막 장소가 의림지라는 사실은 이곳에 지은 죄를 씻어
주는 정화^{淨化}의 의미도 부여되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러한 추정이
설득력을 지닌다면 제천민들에게 의림지는 단순히 물을 제공해 주는 저
수지의 의미를 넘어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문제에 관여하는 종교적
인 공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남 줄 적엔 좋은 것

31 「인색하게 굴어 구렁이가 된 할머니」(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김진복),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

32 「제천 의림지 전설」(충북 단양군 매포면, 심상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

만 주고 뭐든지 후하게 줘야 된다”였으니, 증여와 분배의 지침에 해당하는 이 말은 확인 가능한 「장자못 전설」의 각편들 가운데 유독 ‘의림지’와 관련된 각편에만 들어가 있다.³³

[2]의 경우, 짧은 분량임에도 기본형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모티프가 보인다. ‘미륵뎡이’의 ‘뎡이’가 통상적으로 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석화 모티프 역시 일정 부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도 돌아보지 말 구 날 따라오라”라는 대사의 주문을 어긴 내용이 생략됨으로써 ‘권택’이 ‘미륵뎡이’가 된 것 역시 금기의 위반에 따른 징벌이 아닌 게 되었다. 여기서 그녀가 ‘미륵’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미륵이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구제불이라는 점은 본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천민들이 그녀를 그냥 돌이 아니라 미륵이 된 것으로 상상했다는 것은 미륵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행위와 그녀의 행위를 등가적으로 보았다는 의미일 텐데, 이러한 추정하에서라면 ‘중생’의 자리에 ‘제천민’을, ‘구제’의 자리에 ‘의림지를 통한 부의 공유’를 대입하더라도 그리 어색하지 않다. 쌀 한 바가지로 미륵이 되었다는 게 어찌 보면 과한 설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제천민들에게 각인된 의림지의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지? 이렇게 볼 때, 「장자못 전설」의 일반형과 제천지역의 각편들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제천이 놓여 있는 환경적 조건과 그에 따라 생성된, 부의 분배를 둘러싼 특유의 로컬리티가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33 김영희, 앞의 논문, 93~101쪽에는 논자가 수집한 168편의 「장자못 전설」 각편들이 일반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3. 폐쇄적인 지리적 조건과 외부인에 대한 경계

제천은 지리적으로 남한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에, 남쪽으로는 경상도 문경에 접해 있지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탓에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다. “관청이 쓸쓸하니 지나가는 손이 드물고”³⁴라는 이승소^{1422~1484}의 시구라든지, “첩첩산중의 깊은 골짜기라서 참으로 병란을 피하고 속세를 벗어나기에 적합하다”³⁵라는 『택리지』의 기록은 이러한 추정이 과히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는데, 아래의 작품들 역시 이와 비슷한 정보를 전한다.

[1] (...전략...)

干戈滿近徼	변방 가까이 전운戰雲이 가득하자
冠冕逼塗炭	좌불안석坐不安席하던 벼슬아치들
卽此可幽屏	이곳이야말로 숨어 살 수 있으면만
誰爲沮溺伴	그 누가 저익과 짝하려 하랴. ³⁶

[2]

兵戈避地古堤西	난리를 피해 옛 제천 서쪽으로 들어가니
一馬飄然訪峽棲	필마로 표연히 산골 집 찾아왔지
忽聽磬音眞可喜	발소리 홀연 들려 정말 기뻐지만
相看鬢色不勝悽	흰 살쩍 바라보며 슬픔 금치 못했어라 ³⁷

34 이승소, 「到提川」, 『삼탄집』 권4, 『한국문집총간』 11, 한국고전번역원, 1988, 414쪽. “官寒稀過客”.

35 이중환, 앞의 책, 137쪽.

36 이식, 「堤川西谷」, 『택당집』 권4, 『한국문집총간』 88, 한국고전번역원, 1988, 69쪽.

37 민우수, 「趙監役 翊臣 輓 丙寅」, 『정암집』 권1, 『한국문집총간』 215, 한국고전번역원, 1998, 283쪽.

(...하략...)

택당 이석¹⁵⁸⁴⁻¹⁶⁴⁷이 남긴 [1]은 1628년 유효립의 난으로 인해 파직 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³⁸ 1번째 행에 제시된 ‘전운戰雲’은 전핵에 발발한 정묘호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은 후반부에 있다. 서울 사람인 작가가 제천에 와서 포착한 것은 이곳이 전란의 화마를 피해 “숨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인데, 마지막 행의 ‘저익’에 부여된 관습적인 의미까지 포함한다면 제천이 세속의 세계와 얼마나 격절되어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정암 민우수¹⁶⁹⁴⁻¹⁷⁵⁶가 남긴 [2]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1행의 ‘역란’은 1728년에 발생한 이인좌의 난으로, 그의 다른 글에 따르면 반란이 일어난 초기에 그는 난리를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제천으로 피신했다.³⁹ 공교롭게도 그의 벗인 김신겸¹⁶⁹³⁻¹⁷³⁸ 역시 제천을 피난처로 삼았는데,⁴⁰ 난리가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 모두 ‘한성’이었다.

이렇듯 제천은 외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바깥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지고 보면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조정의 박해를 피해 피신했던 곳도 제천이었고,⁴¹ 동학농민군들이 관군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주둔했던 곳 역시 제천이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은 자연스럽게 제천 특유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텐

38 1627년 충주목사 시절에 지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택당집』이 창작 시기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작품 바로 앞에 배치된 작품의 제목이 「解嘲歸峽, 出東門偶吟」인 것을 감안하면 이 작품은 1628년 파직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할 듯하다.

39 민우수, 『祭金尊甫文』, 『정암집』 권4, 『한국문집총간』 216, 한국고전번역원, 1998, 49쪽. “當戊申亂離之初, 余已捲入于堤峽之濼”.

40 위의 책, 44쪽. “值戊申逆亂, 避地堤川寧越之間”.

41 「배론성지 가보니... 신자들이 왜 여기 숨었는지 알겠네, 『오마이뉴스』, 2022.10.09(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977)

데, 본 논문에서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를 열쇳말로 삼아 해당 로컬리티의 흔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朝鮮朝 宣祖 때의 이야기다. 堤川에 魚氏 다섯 형제가 있었다. 맏형인 魚得滉을 비롯한 형제들은 모두 힘이 장사여서 사람들은 魚氏 五壯士라 불렀다. 하루는 오형제가 義林池에 있는 大松亭에서 놀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려고 했으나 불이 없어 피우지를 못했다. 그런데 의림지 건너 산기슭에서 나무꾼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맏형인 득황은 담뱃대에 담배를 담더니 그것을 상투를 한 머리에 꽂고 의림지에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더니 나무꾼에게 불을 빌어 담뱃대에 불을 붙여 다시 머리에 꽂고는 되돌아 헤엄쳐 오는 것이었다. 의림지에는 큰 이무기(이십)가 있어 가끔 나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데 득황이 의림지 중간쯤 왔을 때 물속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 그를 쫓아 오는 것이었다. 득황이 다리에 감겨 오는 이무기를 발로 차서 쫓으면 이무기는 다시 덤벼들었다. 이무기와 사람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동생 네 형제는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물가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형이 무사히 헤어나기만 기다렸다. 맏형 득황은 쫓고 쫓기면서 물가에 올라오게 되었다. 화가 난 이무기는 물가까지 쫓아 올라와 크고 단단한 꼬리를 휘둘러 득황을 후려했는데 득황이 일른 피하여 맛지를 앓고 단단한 꼬리는 옆에 있던 큰 나무에 가서 박히고 말았다. 득황은 짹짹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로 이무기를 쳤으며 나머지 형제들은 나무막대로 때려죽여 버렸다. 이무기의 비늘鱗이 부서져 사방에 흩어졌고, 흐르는 피는 의림지 물을 붉게 물들였다. 죽은 이무기를 들어 커다란 나무의 윗가지에 걸었더니 머리는 꼭대기에 있고 꼬리가 땅에 닿았다. 그렇게 큰 구렁이었다. 어찌 오형제가 이무기를 잡은 다음부터는 의림지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된 것이다.⁴²

위의 인용문은 제천시 의림동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제천 출신 문인인 학고 김이만^{1683~1758}의 문집에 이 이야기와 함께 이를 한시로 남긴 「어장사참사가^{魚壯士斬蛇歌}」가 실려 있다.⁴³ 설화의 등장인물인 어득황은 실존 인물인데, 그에게는 2명의 형^{어득해, 어득준}과 2명의 동생^{어득수, 어득추}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어득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이름이 『무과방목』에서 확인된다.⁴⁴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등장인물들의 실제 이력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서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단조로운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등장인물들을 둘러싼 사실적 정보와 전체적인 이야기의 열개가 묘하게 결합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첫째, 이무기를 물리치는 다섯 형제들의 성이 ‘어씨’이다. 이들의 본관은 충주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충주 어씨는 원래 지^池씨였으나 시조인 어중익의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어서 고려 태조가 어씨를 사성하면서 서 변성^{變姓}되었다.⁴⁵ 이를 감안하면, 물고기의 원래 자리가 물속인 만큼 위의 이야기에서 어득황이 의림지를 헤엄친다는 설정은 유영자^{遊泳者}의 성씨와 연결되어 재미있는 상상을 낳는다. 즉, 사람인 장사가 요물인 이무기를 처치한다는 이야기의 표층은 물의 원주민이 침입자와의 살벌한 대결에서 승리한 서사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이 이야기의 서

42 「어씨 오장사」, 『전설지』, 앞의 책, 90~91쪽.

43 김이만, 『학고집』 권3, 『한국문집총간』 속집 65, 한국고전번역원, 2008, 64쪽.

44 이에 대해서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참조. 참고로, 이들의 부친인 어수훈의 관직이 前部隊將^{前部隊將}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제천군읍지」 「인물」편 첫머리에 배치된 이들의 선조 어영진이 무과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집안 전체가 대대로 무반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5 이에 대해서는 서혜숙, 앞의 논문, 58~65쪽 참조.

두에는 어찌 다섯 형제가 살았던 곳이 ‘제천’이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제천을 대표하는 공간은 지명에서도 환기되듯 ‘의림지’이다.

둘째, 『제천군읍지』 「인물」편에는 어득황을 포함한 어씨 문중의 사람들이 첫머리에 놓여 다른 문관들보다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⁴⁶ 읍지 편찬의 일반적인 체제와는 다르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데, 자세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가 김이만이 생존했던 18세기까지 전승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천민들에게 어씨 오형제는 외부의 위기로부터 제천을 지켜낸 수호자로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어득황이 못을 건너려던 이유 역시 심상치 않은데, 그가 헤엄을 쳤던 것은 담뱃불을 빌리기 위함이었으니 주지하듯 ‘물’과 ‘불’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에 해당한다.

셋째, 어득해와 어득준은 1573년에, 어득황은 1576년에 등과하여 임진왜란 때 무인으로 왜군을 맞아 싸웠는데, 이 중 어득해와 어득준은 전사하였으며,⁴⁷ 어득황의 경우 『선조실록』의 기록⁴⁸을 참고할 때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현실에서는 국가의 수호자였던 그들이 제천민들의 상상 속에서는 마을의 수호자로 재생한 셈인데, 그들의 전력前歷을 설화에 대입해 보자면 설화 속의 ‘이무기’는 ‘왜군’에 대응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무기가 가리키는 바가 반드시 왜군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려 하는데, 원초적인 무의식이 내재해 있는 설화의 상징 체계는 현실의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작품 속 이무기를 한 단계 추상화된 개념으로 바꾸자면 ‘괴물’에 해당

46 『제천군읍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10750.

47 『제천군읍지』, “魚得海, 萬曆癸酉武科. 官至牧使, 壬辰戰死. 魚得濬, 得海之弟也. 與得海同年武科. 官至牧使, 壬辰戰死”.

48 『선조실록』 36년(1603) 7월 6일자 기사. “정사가 있었다. …(중략)… 어득황(魚得滄)을 구례 현감(求禮縣監)으로, 이몽량(李夢亮)을 대정 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한다. 괴물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가 채 소화할 수 없는 이물적인 요소이자 동화될 수 없는 타자”⁴⁹인데, 리처드 커니에 따르면, 이러한 괴물의 목록 안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방인을 희생양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포함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기준을 공고히 한다.⁵⁰ 다시 말해, 인간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를 처음 접했을 때 공포감을 느끼고, 그러한 공포감 탓에 해당 존재를 괴물로 묘사하면서 ‘우리’와 ‘그’를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괴물이 등장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교란하고, 그를 제거하여 교란된 질서를 회복하는 상투적인 서사에서 괴물화된 타자의 실체들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이다. 물론,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속성이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고립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대개의 괴물 서사에서 괴물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모습으로 발현된다. ‘낯선 자’, ‘적대자’,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지하세계의 왕’이 바로 그것인데,⁵¹ 상기한 이야기의 이무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무기와 사람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에서 ‘낯선 자’이고, 의림지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가끔 나와서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데”]에서 ‘적대자’이며, 물속에서 등장한다는 점[“물속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솟아오르더니”]에서 ‘지하세계의 왕’에 각각 대응한다. 이로써 이 이야기의 이무기는 괴물화된 타자의 조건에 부합

49 강상순, 「괴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한국 고전서사문학 속의 괴물」,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70쪽.

50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49쪽.

51 이에 대해서는 임정식, 「영화 「괴물」의 통과제의 구조와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22(2), 대중서사학회, 2016, 244~245쪽 참조.

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무기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 ‘물속’이 아니라 ‘물 바깥’이라는 것 또한 시사적이다. 이는 이무기를 의림지로부터 축출하는 일이 이 서사의 중심이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어찌 오형제가 이무기를 잡은 다음부터는 의림지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부적 공간을 오염시키는 외부적 존재, 이것이 이무기의 실체인 것으로 보이는데, “머리는 꼭대기에 있고 꼬리가 땅에 닿았다”는 이무기의 크기는 제천민들이 외부적 존재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경계심의 크기로도 읽힌다.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 모산동 의림지 동편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으며, 부잣집 앞에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으로 꼬리를 둔 거북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다. 부잣집에는 매일 같이 사람의 왕래가 많아 이 집 며느리는 손님 시중에 시달려 나중에는 불평불만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엄한 시가의 가풍 때문에 자기의 고충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주승이 찾아왔다. 이 집 며느리가 쌀을 가지고 나와 시주하니 스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며 며느리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평소의 손님 시중에 고달픈 심정을 이야기했다. 고승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거북바위의 꼬리를 밖으로 향하여 돌려놓으면 손님이 적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는 가버렸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느 날 밤 시집 식구들 몰래 하인들을 시켜 거북바위를 돌려놓았다. 그후부터는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부잣집은 기운이 다하여 몰락하고 말았다.⁵²

상기한 이야기는 앞서 2장에서 다뤘던 부에 대한 배분의 문제와 3장

52 『제천시지』, 앞의 책, 213쪽.

에서 다루고 있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문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전자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의림지 동편에 살고 있는 큰 부잣집에 손님이 많았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축적한 부를 독점하는 대신 집안에 찾아온 수많은 손님들이 말해주듯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음을 말한다. 손님들의 시중에 불만이 생긴 며느리가 시주승의 조언을 듣고 거북바위의 방향을 돌려놓자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부잣집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결말은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바, 이 이야기에는 부는 나눌수록 커진다는 제천민들의 무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북바위의 방향 또한 의미가 심장한데, 부잣집이 의림지 동편에 있었고, 거북바위의 원 방향이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거북이가 의림지로 들어가는 형국이어서, 이를 통해 부의 원천이 ‘물’이고, 그 소중한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의림지’이며, 따라서 제천민들의 공유지인 ‘의림지’ 덕에 쌓은 ‘부’는 마땅히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제천민들의 (무)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의림지 동편에 있는 부잣집을 제천 전체의 축도로 보게 되면, 부잣집에 드나들던 손님들은 외부인에 해당한다. 외부인의 발길이 끊어지자 부잣집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외부인에 대한 적극적인 환대를 우회적으로 주문하는 것일 텐데, 이는 역으로 외부인에 대한 제천민들의 경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심의 정도가 낮은 곳에서는 굳이 경계의 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이다.

4. 결론

몇 개의 사례를 들어 제천 지역의 로컬리티를 ‘부에 대한 공유’와 ‘외 부인에 대한 경계’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애초에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무형의 심리적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무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그 무형의 실체를 찾아 나섰던 것은 충북 도민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아래의 기사에서 제천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대선 결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보면 선거 윤곽이 보입니다. 이른바 족집게 선거구를 살펴볼 텐데요, 1987년 대선에서 지난 2012년 선거까지 6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모두 맞춘 지역 10곳을 보겠습니다. …(중략)… 네, 전국의 개표 결과가 10개 지역들의 개표 결과와 거의 정확히 일치해서 대선 축소판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 겁니다. 먼저 수도권인 경기도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안성, 광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대선 때마다 풍향계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청원, 옥천, 음성, 괴산 그리고 금산입니다.⁵³

위 기사는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의 결과를 예측해 보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여기서 해당 기사가 사용한 방법론은 198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총 6번의 선거에서 당선자를 모두 맞춘 지역 10곳을 바로미터로 삼아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재미로 치

53 「'족집게 선거구'의 선택은?」, 『JTBC 뉴스』, 2017.5.09(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5976).

부할 수도 있겠으나 1.5%의 낮은 확률을 통과하는 것은 인구의 연령 추이가 선거의 주된 변수로 작용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속한 충북의 5개 지역에서 지난 6차례의 대선 결과를 모두 맞췄다는 것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과 보수를 표방하는 정권이 갈마들었던 선거 결과를 대입해 볼 때, 정치사의 전환점마다 충북인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좀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⁴ 그런데 유독 제천 지역만큼은 지난 7번의 대선에서 1번을 제외한⁵⁵ 나머지 모두 보수를 표방하는 정권을 선택했으며, 그 나머지 1번 역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충북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 세력에 훨씬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이러한 경향은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야 물론 다양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괄호에 넣은 채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제천의 지리적 조건과 그로 인한 특유의 로컬리티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고자 한다.

열악한 지리적 조건하에서 빈번한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생계의 안정성을 삶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일수록 “부유한 농민은 자비로워야 하며, 돈이 많이 드는 의례에 찬조금을 내야 하고, 일시적으로 곤궁에 처한 친척이나 이웃을 도와줘야 하며, 지역 사당이나 사원에 아낌

54 비단, 기사에 언급된 5개 지역만이 아니다. 충북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충북은 1987년 직선제 이후 202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총 7번의 대선 결과를 모두 맞췄다.

55 2017년 19대 대선이 이에 해당하며, 득표율은 범진보가 40.09%, 범보수가 38.07%였다. 이하, 충북 및 제천의 역대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 참조.

없이 베풀어야 한다”⁵⁶는 것은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당위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생존 원리로 인식한다. 앞서 우리는 제천 지역에 전승되는 「장자못 전설」의 각편들이 일반형과는 적지 않게 다르다는 점을 두고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 바 있다.

다음으로, 생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변화’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그것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만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절망이 공존하기 때문인데, 안정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염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후자이다. 따라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애초에 차단하려고 할 텐데, 이러한 (무)의식이 공간적으로 재현되면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기지^{既知}의 질서와 미지^{未知}의 질서가 될 터,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와 상기한 선거 결과는 제천민들이 뒤의 것보다는 앞의 것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만나게 된다.

56 제임스 스콧,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 19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이만, 『학교집』, 『한국문집총간』 속집 65, 한국고전번역원, 2008.
민우수, 『정암집』, 『한국문집총간』 215, 한국고전번역원, 1998.
이승소, 『삼탄집』, 『한국문집총간』 11,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이식, 『택당집』, 『한국문집총간』 88, 한국고전번역원, 1988.
이중환, 안대회 외 역, 『(완역 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
최석경, 『명곡집』, 『한국문집총간』 154, 한국고전번역원, 1995.
『전설지』, 충청북도, 1982.
『제천군읍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10750.
『제천시지』, 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

2. 단행본 및 논문

- 김상순, 「괴물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한국 고전서사문학 속의 괴물」, 『우리어문연구』 55, 우리어문학회, 2016.
구완희, 「제천 의림지에 관한 역사적 검토」,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편, 『의림지유산과 농경문화』, 제천문화원, 2013.
권순균, 「제천 의림지의 문학지리와 그 의미」, 『한국문학과 로컬리티』, 박이정, 2014.
권혁래,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우리문화회, 2016.
김경수,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과 유교의 현재화를 위한 제언」, 『한국사학사학보』 39, 한국사학사학회, 2019.
김영희,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9.
리처드 커니, 이지영 역, 『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문승두, 「제천분지내의 지형구분에 관한 연구」, 『동굴』 8, 한국동굴학회, 1982.
서영채, 『인문학 개념정원』, 문학동네, 2013.
서해숙, 「의림지 관련 설화에 반영된 지역민의 농경문화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오정미, 「장자못 설화 연구」, 『국어문학』 60, 국어문화회, 2015.
이새롬, 「조선 후기 문인의 남한강 유역 공간 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2.
이영자, 「18세기 호서학파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본 충청의 로컬리티」, 『동서철학연구』 84, 한국동서철학회, 2017.
이창식, 「의림지 전승물의 문화유산적 가치」,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편, 『의림지유산과 농경문화』, 제천문화원, 2013.
이해준, 「지역문화 연구의 경쟁력」, 『로컬리티의 인문학』 2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1.
임정식, 「영화 <괴물>의 통과제의 구조와 그 의미」, 『대중서사연구』 22(2), 대중서사학회, 2016.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소명출판, 2014.

제임스 스콧,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 아카넷, 2004.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그 변이와 분포를 중심으로』, 일조각, 1990.

하윤섭, 「폐퇴와 도묘의 땅, 충북: 송강묘의 이장(移葬)으로 본 충북의 로컬리티」,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단 편, 『고전문학으로 충북을 읽다』, 충북대 출판부, 2021.

3. 기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

한국구비문학대계 홈페이지(<https://gubi.aks.ac.kr/web>)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선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배론성지 가보니... 신자들이 왜 여기 숨었는지 알겠네」, 『오마이뉴스』, 2022.10.9(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r_pg.aspx?CNTN_CD=A0002869777)

「'죽집계 선거구'의 선택은?」, 『JTBC 뉴스』, 2017.5.9(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5976)

Abstract

The Literary Geographic Approach and Exploration of Locality around ‘Uirimji’

Combined wi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geography

Ha, Yun-sub^{*} / Kim, So-ra^{**}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reproduce Jecheon's unique locality through various texts around Uirimji, such as “The Legend of Jangjamot”, “The Legend of Turtle Rock”, and “The Song of Eo, the Muscular Man, Killing the Snake”. Chungbuk Jecheon is a basin located between the Charyeong Mountains and the Sobaek Mountains, which branch off from the Taebaek Mountains. Due to these geographical conditions, there were frequent droughts and the land was barren, so there were few rich people and many poor people. Accordingly, it appears that the awareness of being wary of monopolization of wealth and sharing the acquired wealth was stronger than in other regions, and it is understandable in this context that each variation of the “Legend of Jangjamot” handed down in the Jecheon reg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e general version. Meanwhile, Jecheon was so remote that it was completely untouched by the outside world, and because of this, it is presumed that its wariness toward outsiders was greater than in other regions. “The Song of Eo, the Muscular Man, Killing the Snake”, in which the five brothers restore the existing stable order by destroying a snake that invaded their land, and “The Legend of Turtle Rock”, which calls for active hospitality toward outsiders, are a series of outcomes that reflect this locality of the Jecheon region.

Keywords Chungbuk Jecheon, Uirimji, locality, literary geography, sharing of wealth, caution against outsiders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